



# 1930년 군산으로 시간여행 떠나요

## 관광공사 '9월의 가족 여행지'

### 내달 3~5일 '시간여행 축제'

근대 문화유산을 배경으로 하는 군산 여행이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일제강점기 문화유산을 품고 있는 군산으로의 '시간여행'인 셈이다.

한국관광공사는 '9월에 가볼 만한 가족 여행지'로 군산시가 선정했다. 또 군산시는 다음달 3~5일 군산지역 근대 문화유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축제를 개최한다.

9월 9일에는 2박3일 일정으로 가족끼리 떠날 만한 가을여행지를 선정한 것으로, '1930년대로 떠나는 군산 시간여행'이란 주제로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주변 일대가 선정됐다.

한국관광공사가 여행기자·작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매월 각 지역 관광명소를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9월 9일에는 2박3일 일정으로 가족끼리 떠날 만한 가을여행지를 선정한 것으로, '1930년대로 떠나는 군산 시간여행'이란 주제로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주변 일대가 선정됐다.

군산시는 지난 2009년부터 관내 다양한 근대 역사문화 자원을 복원, 이를 통해 식민지배의 가슴 아픈 기억을 미래세대가

되돌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근대 문화유산 벨트 사업을 추진했다.

최근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경암동 철길마을과 근대역사 경관지구, 선유도 등 군산 역사여행지가 소개되며 가족단위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10월, 군산 시간여행 축제 개최=군산시는 10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월명동 근대역사 박물관과 구불길 일대에서 군산지역 근대 문화유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14 군산 시간여행 축제'를 개최한다.

"근대, 현대 그리고 미래가 소통하는 한 마당"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독립군과 일본 순사의 대결을 테마로 한

체험형 프로그램인 '쫓고 쫓기는 각시탈', '근대 보물찾기' 등이 펼쳐진다.

소설 '탁류' 속 은행원인 남승재를 소재로 개발된 '남승재가 만드는 독립자금'과 '초봉이의 하루' 등 10여 개의 체험형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 밖에 동춘서거스·근대연극 공연, 무성영화 상영, 추억의 먹거리, 근현대사 사진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일제에 항거한 선조의 애국심을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각색해 즐거움을 주는 것은 물론 장소의 특성과 역사성을 살리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 국토관리사무소 터널화재 훈련. 익산국토관리청 남원 국토관리사무소(소장 한병용) 초동대응팀이 지난 29일 임시국도 운암리 국도 27호선 운암터널에서 '도로터널 화재사고 대응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훈련은 터널 내 차량 화재사고 등 상황 발생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 정읍 농협, 추석 맞아

### 독거노인 집수리 봉사

농협 정읍시지부(지부장 노병용)와 정읍농협(조합장 유남영)은 최근 추석을 맞아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내장동 부여마을의 독거노인 자택을 방문하여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집수리 대상자의 집은 벽지와 장판이 노후화되거나 지붕·처마의 목재가 비바람에 썩어 있었다.

봉사활동을 통한 이 집은 산뜻한 벽지로 도배를 마치고 새로운 장판으로 교체하여 밝고 쾌적한 공간으로 말끔하게 단장됐다.

또 지붕 처마의 목재를 절거하고 폭을 늘려 지대가 낮은 주택에 비바람이 안방까지 들이치지 못하도록 했다.

노병용 지부장은 "우리사회의 어려운 이웃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s@

## 전남 소식

### 영암군 지난해 살림 결산해보니 '우수'

#### 76억원 흑자...채무는 68억원

#### 재정자립도 23%·자주도 66%

영암군은 2013년 재정운용 결산결과 재정자립도 등 전 분야에 걸쳐 다른 지역 자치단체와 비교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군은 1일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76억원의 흑자를 나타내는 등 채무액이 적어 지방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자주재원 확충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됐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또 최종예산 대비 자체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2.97%로 동종 자치단체 평균 18.23%보다 높으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해 계산한 비율인 재정 자주도 역시 66.23%로 동종 자치단체 평균인 65.46%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암군의 살림규모는 5025억원으로 규모가 비슷한 지방자치단체 평균(4563억원) 보다 462억원이 많으며, 지방세 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76억원의 흑자를 나타내는 등 채무액이 적어 지방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자주재원 확충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됐다.

영암군은 1일 "최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 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76억원의 흑자를 나타내는 등 채무액이 적어 지방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자주재원 확충 및 합리적인 재원배분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됐다. /영암=대성수기자 dss@

### 다도해국립공원 5일 '지역주민의 날' 행사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소장 최중관)는 추석명절을 맞아 오는 5일 신안군 도초면 동리마을과 흑산면 영산도, 진도 관매도 명품마을에서 '국립공원 지역주민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

'국립공원 지역주민의 날'은 주민들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국립공원 존치키기 위해 여는 행사로 소외계층 지원, 주민화합 행사, 일손 돕기, 환경정화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서부사무소 관계자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지키고자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국립공원 존치를 희망한 마을 20여 개가 산재해 있다"며 "세월호" 여파로 침체된 마을 분위기를 지역주민 화합행사를 통해 활기차게 바꾸어주면 한다"고 말했다. /신안=이성진기자 ssllee@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소장 최중관)는 추석명절을 맞아 오는 5일 신안군 도초면 동리마을과 흑산면 영산도, 진도 관매도 명품마을에서 '국립공원 지역주민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 '국립공원 지역주민의 날'은 주민들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국립공원 존치키기 위해 여는 행사로 소외계층 지원, 주민화합 행사, 일손 돕기, 환경정화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서부사무소 관계자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지키고자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국립공원 존치를 희망한 마을 20여 개가 산재해 있다"며 "세월호" 여파로 침체된 마을 분위기를 지역주민 화합행사를 통해 활기차게 바꾸어주면 한다"고 말했다. /신안=이성진기자 ssllee@



### '시든 꽃이 아니다'... 할머니 학생들 전국문해교육 시화전 우수상

#### 남원 만학도 김동숙·김귀임씨

#### 검정고시 합격 이어 겹경사

"...사랑하는 내 새끼들 이름 석 자/ 써 보지도 읽어내지도 못하니/ 사람들 앞에만 서면 나는 시든 꽃처럼 고개를 떨군다/ 조금만 기다려라 오늘도 한자 한자 머리에 가슴에 품어/ 시든 꽃이 물을 풀어 살아나듯 내 고개도 하늘보고 활짝 웃을 그날을..."

남원시 평생학습센터에서 한글을 배우는 김동숙(59)씨는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답답한 마음을 '시든 꽃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시(詩)로 표현했다.

남원시 평생학습센터 문해(文解) 학습자 2명이 최근 열린 2014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김동숙씨와 '편지쓰는 시어머니'를 쓴 김귀임(66)씨.

김동숙씨는 지난달 6일 치러진 중임 검정고시에서 합격한 데 이어 전국에서 2만

3000여명이 참가한 시화전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하는 겹경사를 맞았다.

센터는 2012년, 2013년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올해 한국교직원 공제회 이사장상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상 등 3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남원시는 9월 '문해의 달'을 맞아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시청 로비에서 '문해 시화전'을 연다. 이번 시화전에는 3년 동안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화전에서 수상한 작품들과 2014년 남원시 성인문해교

육 시화전에 참가한 작품 등 총 141점이 전시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두 수상자처럼 그동안 배워서 입두도 못 내던 배움을 당당하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해 꿈을 이루듯, 평생학습을 통해 남원 시민의 꿈이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평생학습의 꽃인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 재광 곡성향우회 이웃사랑 '훈훈'

재광 곡성향우회(회장 박찬웅)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지난 1일 곡성 관내 어려운 이웃 22가구에 1가구당 1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사진)

또한 향우회원들은 이날 곡성지역 독거노인 3가구를 방문해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를 통해 재능기부를 실천했다.

향우회원들은 매년 십시일반으로 성

금을 마련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꾸준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고창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박찬웅 재광 향우회장은 "고향에 계신 모든 분들을 내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회원들과 의견을 모아 다양한 형태의 기부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NAVER **단비플라워**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경조화환 7만원 시의 8만원** 전화: 062)233-9961 Fax: 062)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4성급★ **호텔건물매매** · 현재 노인요양시설 허가 취득 · 엘리베이터 설치 및 리모델링공사 완료 · 목포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위치 · 4성급호텔, 노인병원 등 즉시 사업가능 (커피숍은 휴업중) · 주차장 및 부속상가 건물 3동

목포시 대의동 2가 1-9번지의 3필지(지상 9층 지하 1층) 토지면적 3,478㎡(1,054평)/건축면적 7,091㎡(2,149평) 연락처 010-9823-7781, 010-9696-8701

**축양장 부지 적합** 완도군 고금면 바닷가 축양장 부지 최적 신축 주택 및 도로·전기 시설 완비

- 지역: 생산관리지역
- 지목: 전 및 대지
- 면적: 11,795㎡
- 매가: 3.3㎡ 당 23만

**소액 투자** 완도군 고금면 농상리 고금-신지 국도 주변 바닷가. 경사 완만. 전망 좋음.

- 지역: 관리·농림 혼합
- 지목: 전 및 임야
- 면적: 8,569㎡
- 매가: 3.3㎡당 3만

**최고의 전원주택지** 서구 세하동 최고 요지 정남향 앞도로 접, 조망권 최고!!

- 지역: 1종 주거지역
- 지목: 전
- 면적: 1917㎡
- 매가: 3.3㎡당 120만

행운(구 대창)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송창석 011-642-7777

收益 **33.3% 호텔** **"급매매"**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개, 지하수, 심야전기 2013년 리모델링 완료 최고급 럭셔리 호텔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접근성 최고!

-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 매출 장부확인 및 계약부조건 가능
- 3년 운영 시, 투자 원금 회수 가능
- 매가 33억 (용자 15억), 현금 18억
- 가격 절충 불가, 실수요자만 문의 바람

신세계공인중개사사무소 문의전화 010.5188.5515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500만원정도 토지 가격 만도 7억5천만원정도 매매가격 8억8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